

전남창의융합교육원, 'ESD챌린저스' 환경 캠페인

광주전남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서 동아리 학생·학부모 플로깅 참여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지원, 창의융합인재양성 프로젝트와 연계 운영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27일 광주전남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창의융합영재동아리 'ESD챌린저스'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환경 캠페인으로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SD챌린저스'는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영재교육원 재원생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재)전남미래교육재단이 지원하는 창의융합인재양성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플로깅 환경 캠페인은 동아리 학생들이 평소 자주 가는 빛가람 호수공원에 쓰레기가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던 중 환경 보호와 함께 운동도 할 수 있는 '플로깅(plogging)'을 해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캠페인 시작 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미세플라스틱 절감' 실천 의지를 다진 후, 다 회용 가방과 비닐이 아닌 생분해 장갑을 준비해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웠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수백 개의 담배꽂초 등을 주우며 작은 쓰레기도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활동을 마친 후 학생들은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이동하여 주위 온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살펴보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이렇게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들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버

러지는 테이크아웃컵을 세척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ESD챌린저스'동아리 학생들은 다양한 조사 활동과 이번 환경 캠페인 활동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제작 중이며,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생산 및 저장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는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영재교육원은 초4학년~중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과정과 정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시간의 온·오프라인교육과 창의융합동아리, 영재교육원 연계학교(찾아가는 SW교육), 학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을 위한 사전 캠프를 진행한다.

김재환기자



국립 순천대-태고총림 선암사, 업무협약 체결



국립 순천대학교가 최근 한국불교태고종 조계산 선암사(주지 시각스님)와 지역사회 및 임업 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암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순천대학교 교영진 총장, 신동원 생명대학장, 정용화 기획처장, 이종수 박물관장, 조계종 부속학술립장과 선암사 주지 시각스님, 총무 원일스님, 문사 도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공동 관심분야 연구를 위한 인적·학술 교류 △수목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의 변화 및 생태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스님은 "우리에게 선암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도량과 자연환경의 원형을 보존하여 만대에 계승하여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며 "선암사 일대의 산림을

지역사회·임업기술 발전 지원

더욱 융성하게 육성하고 시험 연구를 통하여 상호 이익이 순천 시민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대학교 교영진 총장은 "태고총림 선암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흥사찰의 하나로써 조계산 일원과 함께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대학과 선암사의 활발한 교류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 마련을 통해 임업 기술 연구가 더욱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선암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사찰 숲의 보존과 학술 연구·조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등을 운영하며 문화와 교육공유의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순천대 역시 지난해 9월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교구본사인 송광사와 학술립 업무협약을 맺으며 협력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역 대표 사찰과 국립대의 우호적 교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기여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교육청, 초등 3학년 영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화순교육지원청은 29일 '우리 학교 파닉스왕' 초등 영어 입문기 교재 저자로부터 기부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담임교사 317명에게 전달

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담임교사 317명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학교 파닉스왕'(공저 수복초 교사 박은옥, 동강초 영어회화전문강사 이은경) 교재는 초등학교 3~4학년 때 알아야 할 필수어휘와 알파벳 파닉스 학습과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영어 기초학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배부하

게 되었다.

교재를 집필한 박은옥 선생님은 "책 속에 별도로 제공된 파닉스 책받침과 유튜브 학습을 병행하면 학교와 가정에서도 스스로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며 보성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응원하고, 영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진도공공도서관, 풍성한 라이브ART 체험 실시

문화예술 공연 "라이브ART:캐리커처,페이스페인팅,타로"성료

진도공공도서관이 지난 27일 강당에서 지역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라이브ART: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타로체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지역 특성상 접하기 어려운 새롭고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체험 전문 업체'DI.ART'팀을 섭외하여 개인의 특징을 과장하여 그리는 '캐리커처'와 전용 물감으로 팔과 얼굴에 그리는 '페이스페인팅', 서양의 점성술인 '타로'까지 풍성한 체험으로 도서관이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